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렘 2:4-9, 히 13:1-6, 눅 14:7-14)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대학교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넘치
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즈음 들어 외국인 나그네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법무부가 만든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내외국인 출입국
자 수가 2018년 한 해 동안 8,900만 명가량 됩니다. 1980년만 해도 내외국
인 출입국자 수가 150만 명 미만이었고, 1970년에는 겨우 43만 명이었던 것
을 감안하면, 세계가 한 지붕 아래서 한 가족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
습니다. 전체 출입국자 수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의 수가 훨씬 많지만, 외국
인들 역시 적지 않게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출입
국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일
것입니다. 2018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체류자 수는 2,367,607명입
니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와 고향, 친척과 친지를 떠나 전혀 낯선 이국땅
한국에서 삶의 뿌리를 박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나그네들이라 말할 수 있습
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동자들이 100만 명가량 있고,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90만 명가량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16만 명가량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16만 명 남짓, 난민 신청자들이 2만 6천 명가량 있습니다. 잠깐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뿌리 없이 떠도는 부유물처럼 적지 않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는 전문 직종의 종사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3D
업종의 단순직 노동자들로써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들에 대해서 배타시하거나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신세를 더 처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의 동포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나라에 와서 국민의 동일한 권
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말이 자유롭
지 못해 한국 학생들과 대등한 학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자존감을 상실한
채 힘들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베트남출신 여성이 한국인 남편

의 구타를 동영상에 찍어 여론을 들끓게 했던 것처럼,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역시 다문화 속에서 녹록치 않게 살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어떨습니까? 난민들은 종교적인 탄압의 이유로, 정치적인 억압의 이유로, 특정집단의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종 갈등의 이유로, 또는 내전의 이유로 살만한 곳을 찾다가 우리나라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1994년 이래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 23,208 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936명, 인도적 체류로 인정받은 사람이 1,988 명, 불인정 된 사람이 20,284 명 절대다수이니 한국의 난민신청자들은 정착 자체가 쉽지 않아 불안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말씀은 세 가지 이유로 나그네들을 대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이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조상들의 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렘 2: 6)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그네 생활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환대로 나그네 생활을 마감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기에 예레미야는 책망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동산을 떠나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삶의 조건인 에덴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먹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나친 더위나 지나친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압박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한만큼 거두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억압하고 수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가장 풍성한 삶의 조건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역한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삶의 터전이자 고

향이었던 에덴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체제 아래 억눌려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그네가 된 것처럼,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아 정착하다가, 먹거리의 결핍으로 인해 이집트에 가서 나그네가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만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상호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일한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고사하고, 긴장과 대립, 전쟁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우 고달픈 나그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세상에서 그대로 안주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여기가 종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사십시다.” 제안할 만한 멋진 환경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원한 고향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래적인 고향을 기억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관련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히 13: 2)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란 외형적인 제사의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자체에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삶, 음행하거

나 간음하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삶,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족 해하는 삶 등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더운 날 장막 문에서 멀리 들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창 18: 1-21). 날씨가 더운데다, 들녘에서 오는 사람들의 행색이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인지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장막으로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먼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했습니다. 시원한 나무 아래 쉬게 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했습니다. 종들에게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세 사람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임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공유했습니다.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나그네 세 사람을 박대했습니다(창 21: 1-11).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환대를 받은 세 사람이 잠자리에 누우려 할 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테니 데리고 나오시오.” 그러자 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제발 수치스러운 짓들을 하지 마시오...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이들은 내 손님이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나그네는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세 나그네는 잠시 피신할 준비를 시킨 다음 롯과 가족들을 소돔에서 떠나게 했고, 소돔 전체를 유황과 불로 진멸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 세 사람을 박대한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니 하나님을 박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서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들을 박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로 고아와 과부에 나그네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난무할 때면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상기시키시며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로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와 함께 나그네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그들과 일체화 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 요약한 성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었고, 이 둘은 나눌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에게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동시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베푸는 대접에 대해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상응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자는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눅 14: 12-14) 예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에 되갚기 어려운 사람들로써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감사의 마음과 빚진자의 마음을 언제나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들은 접대를 받을지라도 베푸는 자의 시야에서 곧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말구유에 태어난 이래로 이집트로의 피난, 아버지의 이른 죽음, 마귀의 시험, 기득권자들의 핍박, 제자들의 배신 등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고난의 삶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철저히 사셨던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세상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나그네들에 대한 우리의 대접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마 6:19-21) 우리가 베푼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특히 나그네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창고에 쌓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합니다. 한국의 샤만들, 무당들이 비는 것 역시 복입니다. 무당들이 굿을 할 때 굿을 청한 사람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채를 아낌없이 던집니다. 자신들이 던진 복채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복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 배타적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 민족이 함께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 역시 세상의 상식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복이었습니다. 팔복을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나그네였고, 지금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서 하나님을, 동시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착주민이든 나그네이든 모든 인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언제나 진심으로 환대하며 살 것을 작정하는 대학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으로 묵상기도하시겠습니다.